

V+대동여지도_쌍영방적(주)

* 대한민국 곳곳의 강소벤처를 소개합니다.

쌍영방적(주)



종이로 만드는 친환경경 옷

저탄소녹색성장. 그것을 가장 잘 실행하는 기업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과거에 종이는 말 그대로 종이로만 사용이 되었다. 하지만 요즘은 종이(한지)로 실을 만드는 것을 개발하여 지금은 종이가 옷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종이로 옷을 만드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두 곳 뿐이다. 시기적으로는 일본이 조금 앞서서 개발을 했지만 실제로 상품 개발은 우리나라가 더 많이 되고 있다. 한지로 실을 만들어 종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 회사. 바로 쌍영방적(주)이다.

글_ 최문선 · 사진_ 신상은



— 신뢰로 만든 회사 쌍영방적

쌍영방적(주)(대표 김강훈, www.ssangyoung.net)은 1963년 쌍녕섬유공업사 설립을 시작으로 (주)쌍방울을 거쳐 2004년 12월 쌍방울에서 분사하여 지금의 쌍영방적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회사다. 쌍영방적은 40년이 넘는 방적기술의 노하우를 토대로 일반사부터 한지사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최고의 품질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87년도 쌍방울 입사하여 사업본부장(공장장)까지 지낸 김 대표는 2004년 쌍방울에서 분사하여 공장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2007년 공장 부지가 매각이 되면서 조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당시 2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직원 수도 140여 명 정도가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직을 하게 되었다고.

김 대표는 “그때 당시는 너무나 힘들었다”며, 부도처리를 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주위의 유혹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그대로 안고 다시 힘을 내 현재의 쌍영방적을 만들었다.

“사업은 신뢰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시 시작한 것은 저의 채무상환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만약 그때 부도처리를 해버리고 다시 시작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쉽게 갔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신뢰가 떨어져 다시 회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5~6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다시 일어난 쌍영방적은 현재 28명의 직원이 미래를 향해 맘을 흘리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한지사 제조업체로서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 종이로 옷을 만들 생각하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한지사를 생산하기 시작한 쌍영방적이지만 연구는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되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어도 “한지에서 메리트가 많이 느껴졌다”는 김 대표는 예전부터 친환경이 대세로 등장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한지가 저탄소녹색성장을 표방하는 현 상황과 지구온난화, 고령화 사회 등 모든것에 잘 맞는 섬유인 만큼 한지사에 대한 연구를 멈출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쌍영방적의 한지사는 지식경제부 지역연구사업(RIS)에 의해 니트산업 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후 연구원에서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때문에 쌍영방적은 벤처기업뿐 아니라 부품소재 업체로도 등록이 되어있다.

“우리나라가 섬유 4대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섬유소재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한지섬유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섬유소재”라고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

한지의 용도는 섬유제품뿐만 아니라 산업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산업용으로는 건축자재, 자동차 내장재까지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될 것이라는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쌍영방적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최고의 한지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2006년에 한지사에 관련된 3가지 특허를 출원하였고, 2007년에도 2종의 특허를 출원하여 최고의 한지사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자연에서 찾은 친환경 섬유

20년 이상 섬유 일을 하면서 많은 기능성 섬유를 봐온 김 대표는 거의 대부분이 항균, 탈취 등의 기능을 섬유에 추가하기 위해 화학가공을 한 제품들이었다. 다른 친환경 소재들은 자연상태 자체에서 기능성 제품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가공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다. 반면 한지는 자연상태 그대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타 소재들은 기능자체가 화학가공의 수명이 다하면 일반 섬유나 마찬가지로 한지섬유는 섬유자체의 수명이 다 할때까지 지속된다.

한지섬유의 재료가 되는 닥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관목으로 높이는 3m정도로 잎은 어긋나고 2~3갈래로 나누어지며 껍질의 인피섬유로 여러공정을 거쳐 한지를 만들어낸다. 닥나무 인피섬유인 닥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한지는 인체에 무해한 대표적인 친환경 천연 섬유소재로 황토수준의 원적외선 방출, 항균성, 소취성능, 흡습속건성, 용이한 염색성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한지를 원료로 여러 공정을 거쳐 만든 것이 한지사이다. 한지사는 한지의 우수한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직과 편직이 모두 가능하다. 또한 경량 소재이며 생분해성이 좋고, 내구성과 내세탁성이 우수하고 독특한 질감과 감성을 가진 친환경제품이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지식경제부와 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한 미래유망상품 30가지에

선정되어 '한지텍스' 라는 브랜드 네임까지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종이를 원료로 의류를 만들다 보니 세탁을 하고 오래도록 입다보면 색이 빠지거나, 옷이 상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는 것. 하지만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한지의 강도는 실험으로도 증명된 바 있고, 옛 문헌에서 보면 한지를 이용해 갑옷을 만들었을 정도로 강도면에서 검증되었다.

아직은 회사가 자리를 완전하게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김 대표. 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직원들에게 투자를 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다는 그는 직원들의 복지에도 상당 부분 신경을 쓰고 있었고, 회사의 이익을 직원들에게 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의 어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을 위해 직원들과 합심하여 뛰고 있는 쌍영방적(주)의 김강훈 대표.

그의 목표대로 쌍영방적을 한지섬유뿐만 아니라 친환경섬유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로 끌어올리는 한편 현재 인터넷 쇼핑몰 판매를 넘어 향후 쌍영방적의 이름을 내건 전문매장을 전국적으로 꾸리기를 기대해 보자.

한지사(韓紙絲) 제품의 특성

- * 세균의 번식을 막아준다.(항균성)
전염성 질환의 주 원인이 되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99.9%의 정균감소율을 갖는다.
- * 불쾌한 냄새를 없애준다.(소취성)
생활속에 불쾌감을 주는 3대 악취 중 하나인 암모니아에 대한 탈취율이 매우 높은 위생섬유소재다.
- * 땀과 수분을 신속 방출한다.(속건성)
인체의 땀 및 수분을 신속하게 흡수 발산시킴으로써 언제나 쾌적한 상태를 느끼게 해준다.
- * 원적외선을 방사한다.(원적외선)
원적외선은 인체의 생리작용을 활성화시켜 인체 내의 노폐물제거, 혈전 분해 및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준다. 한지제품은 황토수준의 원적외선을 방사한다.

한지제품의 제품별 장점

- * 유-소아제품
 - 아토피 예방 및 기능성 부각 / - 다기능 천연 한지로 만든 제품 부각
 - 천연소재 제품 및 항균성 및 원적외선 방사율이 황토나 숯보다 높고 피부 트러블 예방 및 고급 기능성 제품으로 전개
 - 제품군 : 내의 / 런닝 / 기저귀 / 트렁크 / 기운 등
- * 성인제품
 - 암모니아 소취율이 99.5% 이상으로 냄새제거가 탁월함을 부각
 - 항균성이 99.9% 이상 및 흡습속건성 부각
 - 흡수성이 면의 5배 이상 건조성이 면의 2배 이상
 - 제품군 : 내의 / 런닝 / 삼각팬티 / 트렁크 / 티셔츠 / 양말
- * 실버제품
 - 노인성 냄새제거 부각(소취율 99.5% 이상)
 - 면보다 제품이 가벼우며 통기성, 보온성, 항균성 기능 부각
 - 원적외선 방사율이 황토나 숯보다 높음
 - 제품군 : 내의 / 런닝 / 삼각팬티 / 잠옷류
- * 기타제품
 - 한복지/수의/벽지/양품류 등 한지원사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을 개발